

광주

작은 무대에 부는 바람

다섯개의



‘호야 내새끼’

전국 소극장 제작 연극 5편 공연...11월 한달간 씨어터 연바람

소극장 창작작 콘텐츠 페스티벌 ‘작은 무대에 부는 바람’이 11월 한달간 광주 소극장 씨어터 연바람을 찾는다.

‘작은 무대에 부는 바람’은 지난 10월 서울 대학로의 소극장 ‘스튜디오76’에서 쇼케이스를 겸한 공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전국 9개 지역 소극장에서 제작한 9편의 작품 중 5편이 광주의 씨어터 연바람에 배급됐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다섯편의 연극은 ‘아버지와 살면’, ‘행복아파트 강아지 도난사건’, ‘호야 내새끼’, ‘고슴도치를 입양하세요’, ‘아빠들의 소꿉놀이’ 다섯편으로 각각 춘천, 전주, 대구, 서울, 구미의 극단에서 대표하는 우수 작품들로 구성됐다.

‘아버지와 살면’

‘행복아파트 강아지 도난사건’

‘호야 내새끼2’

‘고슴도치를 입양하세요’

‘아빠들의 소꿉놀이’



‘행복아파트 강아지 도난사건’

먼저 7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아버지와 살면’은 일본에서 500회 넘는 공연이 이뤄질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이노우에 히사시의 2인극이다.

다음으로 선보여지는 ‘행복아파트 강아지 도난사건’은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전주 극단에서 2019년 첫 선을 보인 작품으로 독거노인의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주민간 일어나는 소통을 중심으로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호야 내새끼’가 선보여진다. 대구 극단 ‘함울림’의 히트작 ‘호야 내새끼’를 소극장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으로,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슴도치를 입양하세요’는 명품가방, 중고거래, 고슴도치 등을 상징으로 현대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연극이다. 방어적인 삶을 사는 두 여인의 중고거래를 매개로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공연은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지는 ‘아빠들의 소꿉놀이’는 오세혁 작가의 블랙코미디를 구미 극단 ‘공터다’가 각색한 것으로 IMF 시절 소시민들의 씁쓸한 풍경을 풍자적으로 그려냈다.

광주에서는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이 전국 4개 도시(구미, 대구, 부산, 제주)를 유랑한다. 사평역은 객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를 각색한 연극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속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무대에는 배우 오성완, 김대영, 전미주, 서성하, 최경원, 오세희가 함께 한다.

티켓 가격은 2만 원이며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전화 예매가 가능하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현대미술 에쁘꼬’ 2022년 가을호

이명숙 작품세계 조명, ‘김종일·정송규 특별기획 2인전’ 소개

지역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왔다. ‘현대미술 에쁘꼬’ 2022년 가을호(통권 17호)다.

이번 호에는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27m 초대형 회화작품으로 초대전을 가진 이명숙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했다. 윤의 기획자가 ‘Life e Fantasy-영원히 생성하는 삶의 환희’를 주제로 작품 세계를 들여다봤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김종일·정송규 특별기획 2인전’도 소개한다. 존재의 형이상학, 흑과 백의 서술은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작가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로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특별한 행사도 함께 열렸다.

특별 기획으로는 프랑스 노르망디 세인트 줄리앙 샤펠(3월 17일-4월 3일)에서 열린 노정숙 작가의 개인전을 소개한다. 지난 2005년 프랑스 개인전 후 18년만에 열린 이번 초대전에서는 60여 점이 전시됐다.

노 작가는 파스칼 지하흐와 앤들리스의 니콜라스 푸생박물관에 초대전시에 10월부터 7개월간 참여한다.

또 700년 동안 프랑스 행정수도였던 블루아지역 단체 전시와 라 룬데 전시회로 이어지면서 2023년까지 프랑스를 순회한다.

부산의 ‘혁동인’과 광주의 ‘에쁘꼬’가 1984년부터 시작해 올해 제38회를 맞은 대한민국남부국제



현대미술제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해외 작가로는 프랑스 피에르 귀린과 리터브흐의 작품 세계와 광주 레지던시 프로그램 소식을 들려준다.

예술기획으로는 서양화가이자 화순에서 대곡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미 작가의 베니스비엔날레 기행, 국제교류 네트워크 현장으로 16년간 이어져온 광주와 프랑스 루앙의 예술가들을 만난다.

김유홍 개인전 ‘심상표정’, 강태웅 ‘생동, 회복’, 이정기 ‘현재인: 불확실한 가치’, 서유나 ‘The Sound of life’, 임희정의 ‘Sensitive-순수’ 등도 소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ChunMan Art for Young’ 프로젝트 공모

천만장학회·삼천리그룹, 시각예술 인재 육성

재능 있는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온 재단법인 천만장학회가 삼천리그룹과 함께 시각예술 인재들을 육성하는 ‘ChunMan Art for Young’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

천만장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의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 활동 및 기관 지원을 통해 재능 있는 미래 인재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뉴미디어 등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등 현재 시각예술 전 분야의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하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

접심사로 진행되며 특히 2차 심사는 휘트니 미술관 큐레이터 켈리 톱과 뉴욕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로라 브레이브먼 등이 참여한다.

최종 선정된 30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1 등에게는 장학금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수상자 전원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 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다.

천만장학회는 삼천리그룹 창업주 고 이장군 회장의 장남 고 이천득 전 삼천리 부사장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사랑 차남인 이만희 현 삼천리그룹 회장의 인재 중시 및 사랑과 나눔의 실천 철학을 담아 형제가 사재를 출연하여 1987년 설립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먹과 농담, 여백의 미...문인화 매력 만끽

광주·전남문인화협회원전, 3~9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묵향의 매력, 문인화에 빠지다.’

광주·전남문인화협회의 출발은 1992년 5월이다. 광주·전남도전 추천초대작가들이 발기인 모임을 갖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해 9월 회원 1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은 금봉 박행보 화백이 맡았고 다음해 98명의 회원이 출범, 남도예술회관에서 성대한 창립전을 열었다.

지역 미술계를 견인해온 광주·전남문인화협회(회장 이용선) 제29회 회원전이 3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오프닝 행사 3일 오후 5시.

‘After Coroa’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회원 144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역대 회원전 중 가장 많은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작들은 먹과 농담, 여백의 미 등 문인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참여작가들은 묵련, 상사화, 수국, 해바라기, 소나무, 매화, 동백, 능소화, 모란 등 꽃과 나무를 비롯해 순천만, 관매도 등 자연풍광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또 감따기, 자전거를 타는 아이의 모습 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작품도 내놓았다.

전시에는 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박행보 화백의 ‘고졸미’를 비롯해 장찬홍의 ‘영경리’, 김영삼의 ‘비오는 날에’, 한상운의 ‘세상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구지희의



이용선 작 ‘가을향기’

‘순천만’, 조재환의 ‘가을정취’, 조창현 ‘부득란’ 등이다.

광주전남문인화협회는 매년 협회전과 함께 부채전 ‘무등의 바람’ 등을 진행했으며 제주문인화협회와 교류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채로운 색감...동화같은 풍경

박주하 개인전, 3~9일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

박주하 화백의 작품에는 뚜렷한 인장(印章)이 있다. 물감을 ‘점’처럼 수없이 찍어 만들어내는 화면이다. 여기에 다채로운 색감이 더해지면 화면은 훨씬 풍성해진다.

장승, 당산나무, 돌담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토속적인 소재와 정서도 그의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박주하 화백 개인전이 3일부터 9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오프닝 행사 3일 오후 3시-7시.

전시에는 지난 2018년 개인전 이후 작업한 작품들이 나왔다. 무지개 위를 날아다니는 아이, 누런 송아지를 타고 노는 아이, 나무 위에 걸터앉은 아이들이 담긴 ‘동심 시리즈’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이들이 꿈꾸는 즐거움 상상 속 세상으로 알록달록 화사한 색채가 동화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또 불교적 느낌이 강한 ‘열(念)’ 시리즈, 다채로운 푸른빛 감성이 인상적인 ‘深’ 등의 작품도 만난다.

그가 올해 작업한 풍경화들도 눈길을 끈다. 마치 초록물이 들 것 같은 여름날의 풍경이라든지, 화사함이 물씬 풍기는 봄날의 정경은 생의 환희를 표현한 듯하다. 또 ‘생’, ‘緣’, ‘생명’ 등 추상적 느낌이 가미된 작품들은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1990년대부터 점묘법을 활용해 작업하는 그는 다양한 물감을 섞어 오방색을 만들어내고, 나이프와 붓을 이용해 다양한 효과를 주며 작품을 완성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기다림’

박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목우회 공모전 등에서 특선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전남대, 호남대 등에서 후학들을 가르친 박화백은 지금까지 20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형21, 신작전 회원이다.

‘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광주관광재단, 9일까지 접수

광주관광재단이 지역 관광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2022 광주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존의 자원을 재해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도시광주로 브랜드링 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30명을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이달 9일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s://bit.ly/3DqRLHm)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30명이며 이달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들에게는 팀당 콘텐츠 제작비 10만 원, 광주 소재 촬영지 섭외 협조, 인플루언서 유튜브·로컬 크리에이터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우수작품 시상 및 차년도 사업 참여기회 등이 지원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